전북 봉축위원회 대규모 연등축제 예정

불기 2567년 봉축 행사 논의
가족 UCC 공모전 등 행사 다채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라북도 봉축위원회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금산사 주지 일원,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2월 27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2층 강의실에서 열린 이날 봉축위원회 회의는 사단법인 불교문화보존회 설립에 대한 보고, 불기2567년 봉축위원회 구성, 불기2566년 봉축결산보고, 올해 봉축행사 계획안 심의,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축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부원장 지홍 스님, 총무국장 현진 스님을 비롯한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대표,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각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봉축위원회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봉축행사 일정과 약 1억 4천여 만 원의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봉축위원장 일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연등축제가 되지 못했다"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이 많이 해소돼 그 어느 해보다 알찬 연등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사)불교문화보존회의 발족에 따라 불교문화보존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의 주관으로 봉행될 예정이다.

이번 봉축행사는 4월 29일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거리연등 장엄, 군부대와 경찰청 위문, 교도소 재소자 법회에 이어 예전과 달라진 대규모 연등축제로 예전과 많이 달라진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소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라감영으로 바뀌게 되며 단순한 연등축제가 아닌 일반시민과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열린다.

불교연합합창단, 청소년 댄스팀 공연, 지역 퓨전 국악단 및 가수들이 출연하는 식전행사와 유명가수들이 출연하는 뒤풀이 공연으로 다함께 즐기는 연등축제가 될 전망이다.

눈에 띄는 행사로는 청소년 댄스 UCC공모전, 부처님 생일축하 가족 UCC 공모전, 어린이 큰 잔치 등 연등축제를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사찰음식과 명상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연등 만들기, 인경체험, 소망 번 쓰기 같은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봉축 기간 동안에는 전주시내 백제교 등 주요 교량에 LED 연등이 불을 밝히게 된다.

진안 쌍봉사, 지역 어르신에 나눔

밑반찬 세트 100가정에 전달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월 25일 쌍봉사에서 진행된 이번 나눔 봉사활동에 참가한 봉사자들은 무말랭이무침, 섬초 · 배추무침, 메추리알, 곤약조림, 미역국으로 구성된 밑반찬 세트를 만들었다. 이날 만든 밑반찬은 진안군 지역의 홀몸어르신들과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100가정에 전달됐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이번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으로 3년째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이웃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와 공감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찬을 받은 한 어르신은 "맛있는 반찬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 봉사자들의 정성어린 봉사와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반찬들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보경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도에 해수관음상 조성 추진

장보고 대사 염원 담은 랜드마크
건립 타당성 모색 학술대회 개최



전남 완도군이 장보고 대사의 염원이 담긴 불교 랜드마크 해수관음상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는 2월 23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관음신앙과 해수관음상, 그리고 완도 장보고' 란 주제로 '완도 해수관음상 건립 타당성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9세기경 완도를 중심으로 활동해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석권한 장보고 대사가 관음신앙에 의지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진행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병삼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관음신앙의 불교사적 의의와 해수관음' 에 대한 기조발표에 이어, 조범환 서강대 사학과 교수의 '관음신앙의 해양사적 의미와 장보고' , 신선혜 호남대 교양학부 조교수의 '전남의 관음신앙과 완도' , 강희정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의 '해수관음의 전통과 새 시대의 관음상' , 송화섭 前 중앙대 교수의 '동아시아 관음성지의 남해관음과 완도 청해진' 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정기총회

2월 24일 성주사서 정기총회 개최
차기회장 법안스님 만장일치 추대
명칭 변경 등 안건 심의 · 의결
故 박수철 유족에 위로금 전달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2월 24일 창원 성주사에서 불기256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에 창원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제7대 회장으로 추대된 성주사 법안 스님의 임기는 2년으로 3월 1일부터이며 취임식은 3월 10일 성주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7대 회장에 추대된 법안 스님은 수락사를 통해 "스님들의 기대에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서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가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천웅사 성우 스님, 반야사 혜명 스님의 감사보고에 이어 2022년 결산 및 2023년 사업계획안이 통과됐다. 또 올해 봉축행사 계획과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명칭 변경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지난해 창원시가 창원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 창원불교연합회의 공식명칭도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로 변경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는 지난해 12월 별세한 故 박수철 창원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유족에게 위로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7대 회장에 추대된 법안 스님은 1980년 범어사에서 덕명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2011년~2013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장, 2012년~2014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2012년~2016년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 2012년~2016년 대한불교조계종 결사추진위원회 위원 등 종단의 요직을 역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불교환경연대(준), 생태방생

군산시 회현면 만경강 일대서
철새 먹이주기 볍씨 약 90kg



전북불교환경연대 준비위원회(위원장 남궁선)가 새만금과 만경강 주변에서 월동준비 중인 철새들을 위한 먹이주기 생태방생을 진행했다.

전북불교환경연대는 2월 25일 큰 기러기, 쇠기러기, 청둥오리, 노랑부리저어새, 말똥가리 등 겨울철새들이 월동하고 있는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만경강 일원에서 철새 먹이주기 생태방생을 진행했다.

이날 생태방생 활동에는 고창 미소사 회주 종범 스님, 미소사 주지 대우 스님, 미소사 불자들과 전북불교환경연대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집결지인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에서는 오동필 새만금생태조사단장의 현재 새만금의 생태환경과 올 겨울을 이곳에서 나고 있는 철새들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다.

종범 스님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먹이주기 장소인 회현면 금광리 만경강변 농지에 볍씨 약 90kg을 곳곳에 놓아두었다.

종범 스님은 "새만금과 만경강은 다양한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특히 겨울 철새들이 월동을 마치고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며 오늘 철새 먹이주기 활동에 동참한 불자들이 이웃에도 널리 알려 생활 속에서도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주연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울산과 부산 낙동강 큰 고니 먹이주기 생태방생에 이어 오늘 새만금 만경강에서 전북불교환경연대 준비위원회와 미소사가 함께 생태방생을 하게 됐다" 며 "뭇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생태방생이 전국의 사찰에도 많이 알려져서 곳곳에서 생태방생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가족과 함께 참가한 문소희 불자는 "언론에서만 접하던 새만금을 직접 와보고 환경활동가들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생태환경에 대해 실감하는 하루였다"며 "가족들과 함께 생태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 환경을 살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前 스리랑카 대통령, 대구 사원 방문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前 스리랑카 대통령이 2월 25일 대구 스리랑카 사원(주지 완사 스님)을 방문했다.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지난 목요일 입국한 시리세나 전 스리랑카 대통령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스리랑카 대구사원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스리랑카사원과 이주 근로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이사장 은장권)' 은 스리랑카 복지기관과 대구 스리랑카 사원 후원을 위한 기금을 시리세나 前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시리세나 전 대통령은 "한국은 코이카를 통하여 스리랑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활발한 교류로 양국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